

■ 제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한 달 / 코로나가 바꾼 일상

‘밖’보단 ‘집’... 사람 많은 곳 기피 확산

행사와 모임 취소·연기 주말에도 도심 곳곳 한산 배달 등 비대면 소비 ↑ 마스크 구매 전쟁 여전 “코로나 극복” 온정 붓물 사회적 약자에 배려심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서 있는 사람들. 사진=한라일보 DB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이번 주말도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김모(40·제주시 일도1동)씨는 친구들과의 모임 등 외부 활동을 접고 집과 회사만 오가는 생활을 2주째 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장을 보러갈 때나, 회사를 갈때가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있다”면서 “가족들 모두 집 안에서 지내는 걸 답답해 하지만 별 수 없다. 이번 주말에 지인 들잔치가 있지만 참석하지 못해 축하금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도민들의 삶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외출을 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제주 도심 곳곳은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행사·모임은 취소되기 일췌였

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연기하는 예비부부들도 있었다. 도내 신문 광고란에 게재된 글을 보면 이들은 ‘축복해달라’는 말 대신 ‘코로나19 확산 관례로 화축 예식과 피로연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로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 간 접촉을 꺼리다보니 소비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 배달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늘었다.

제주시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관광객들이 주요 배달 고객인데 관광객이 급감하다보니 전체 배달 주문 물량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일반 가정의 배달 주문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배달을 하지 않고 매장 방문 고객만 상대하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증가폭이 30~4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판매처마다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마스크 구매 전쟁은 일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판매시간을 오후 5시로, 한 사람당 1주일에 살수 있는 갯수를 2장으로 각각 제한하다보니 여전히 시민들은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기자” 힘 모은 시민들=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위생수칙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에 더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을 시작한지 3주만에 각각 성금 6억 4000여만원과 3억7000여만원을 모았고 19일 밝혔다. 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3억2700여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들어왔다. 기부 사연도 다양

각색이다. 1년간 모은 적금을 해지해 500만원을 전달한 시민에서부터 옹돈을 아낀 것이라며 44만원을 기탁한 시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해주라며 30만원을 기탁한 시민, 마스크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아 작게나마 진심을 보이고 싶다며 500만원을 전달한 약사 등이 있었다. 여기에 손수 바느질 해 만든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전달한 부녀회,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동네를 지키겠다며 방역에 나선 의용소방대, 의료 현장에 복귀한 퇴직 간호사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결혼은 늦게하고 이혼은 많고...

초혼 남 34세·여 31세... 이혼 전년보다 6.8% ↑

통계청 2019년 결혼·이혼 통계

제주지역 초혼연령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조이혼율(1000명 기준)도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초혼연령은 남자 34.0세(전국 평균 33.4세)로 전국 1위, 여자는 31.0세(전국평균 30.6세)로 부산과 공동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2018년 남자 33.7세와 여자 30.8세에 견주어 소폭 올랐다. 제주지역의 평균재혼연령은 남자 49.1세(전국평균 49.6세), 여자는 46.1세(전국평균 45.2세)다.

지난해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

과의 혼인 비중은 제주가 12.3%로 가장 높고, 세종이 5.7%로 가장 낮다. 제주의 최근 3년간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2017년 10.3%, 2018년 11.7%, 2019년 12.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이뤄진 혼인건수는 3358건으로 전년 대비 3638건에 견주어 7.7% 줄었다. 이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423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건 적다.

반면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은 1716건으로 2018년 1607건보다 109건 늘었다. 증가율은 6.8%로 세종(24.9%)과 충남(7.4%)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조이혼율은 2.6건(전국평균 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백금탁기자



도내 5개 고등학교 학생 9명으로 구성된 TF는 19일 학생 531명 등 1002명에게 받은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아이 때문에, 가족 돌봄휴가 쓰고 싶지만...”

16~18일 도내 147건 신청... 직장인들 “회사·동료 눈치보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2주 더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면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가로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25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지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현황은 147건이며, 전국적으로는 9583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윤모(32·여)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지만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회사로부터 흑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용기가 꺼려진다”며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에게 맡기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휴가를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오늘까지 태풍급 강풍도, ‘선별진료소’ 점검

20일까지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새벽까지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재난취약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내 6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환자 대기 임시시설물에 대한 철거 또는 결박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 재해위험·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활동도 진행했다. 송은범기자

“학생 인권침해 사례 되풀이 안돼”

도내 5개 고교생 ‘제주학생인권조례TF’

“학교 특성상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노트북까지 소지품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USB까지 검사합니다.” (A고등학교 사례)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잠 못 자느냐.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거라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겼기에 모든 폭력과 억압은 정당화됐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 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TF가 활동을 시작한 2017년부터 토론회, 세미나, SNS 등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도내 5개 고등학교 학생 9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학생 531명 등 1002명에게 받은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학생을 책임이 아닌 기자회견장에 앉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 교육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겼기에 모든 폭력과 억압은 정당화됐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 받는 인권사회의 실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당)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제주도정 소식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드립니다. 2020년 도민참여 꽃가꾸기 캠페인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